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. 11. 25-26 부산
	배포일시	2019. 11. 19.(화) 총 7매(본문 5, 참고 2)	
담당 부서 국토정책과	담 당 자	· 과장 정의경, 서기관 김기훈, 주무관 강규욱 · ☎ (044) 201 - 4950, 3653	
보 도 일 시	2019년 11월 20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0.(수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모두를 위한 국토, 함께 누리는 삶터” 국토의 새로운 비전 20일 총리 주재 국토정책위서 ‘제5차 국토종합계획안(2020-2040)’ 심의 “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” 를 공간 전략으로 제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1.20(목)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*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.

*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, 위원장(국무총리) 포함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국토기본법 제26~27조)

- 민간위원(27명) : 국토, 도시, 건축, 주택, SOC, 경제, 환경, 문화관광, 인문사회, NGO 등 각 분야 전문가 / 정부위원(14명) : 기재·국토 등 관계부처 장관·청장

○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한 국민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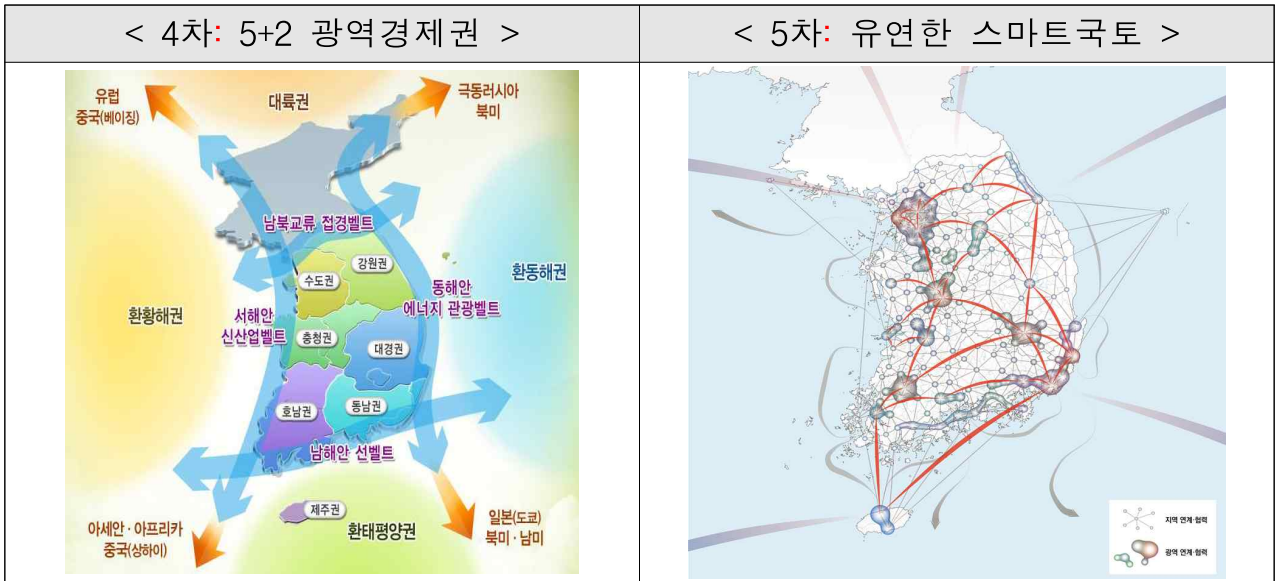
□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‘모두를 위한 국토, 함께 누리는 삶터’이다.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‘21세기 통합국토 실현’, ‘글로벌 녹색국토’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지만,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하였다.

<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>



- ◇ 모두를 위한 국토: 다양한 세대와 계층, 지역이 균형 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,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
- ◇ 함께 누리는 삶터: 삶의 질,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·생활·도시·국토 공간에서 구현,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환경 조성

- 그리고 균형 국토, 스마트 국토,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.
-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, 저성장,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, 4차 산업혁명,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.
- 이번 계획안은 지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는 비전뿐 만 아니라, 공간 전략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. 제4차 계획은 '5+2 광역경제권'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던 반면에,
- 제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다.



□ 특히, 계획 수립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이다.

○ 국가계획을 수립할 연구기반이 없었던 70년대에 수립한 1차 계획은 외국인의 손*에서 시작되었고, 이후 세 번(2~4차)의 계획은 정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.

* 프랑스 지역개발 컨설팅회사(오탐 메트라)가 '72년 1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한 반면, 우리나라 최초 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은 '78년 설립

○ 하지만,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고, 더 나은 국토를 위한 바람을 담아 국토계획헌장도 제시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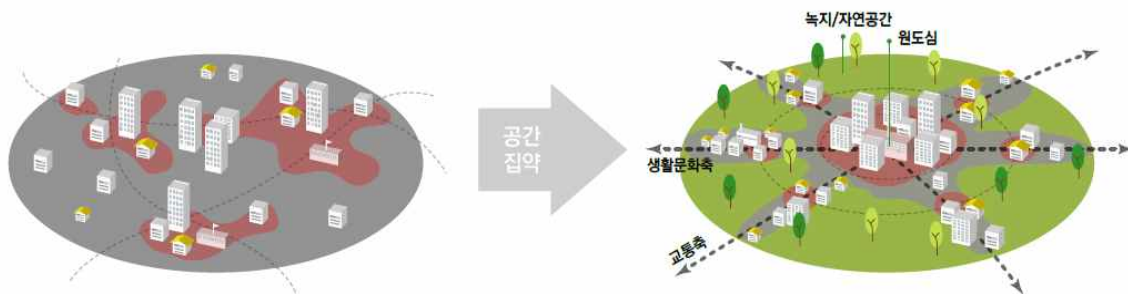
* 국민참여단 : 자발적으로 신청한 국민 중 170명을 선정(17개 광역지자체 각 5명, 나이·성별 고려), 3회의 회의를 거쳐 의견 수렴

< 국토계획현장: 더 나은 국토를 위한 국민의 바람 >



-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. 계획에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.
- 먼저,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, 교통축·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.

< 스마트 공간 재배치 개념도 >



- 둘째로,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.

- 셋째로,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.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,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- 마지막으로,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.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,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,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.
-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,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,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.
- 오늘 심의회에는 국토, 도시, 건축, 산업, 환경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으며, 오늘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하여 국무회의,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“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,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”면서,
 - “저성장,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김기훈 서기관(☎ 044-201-495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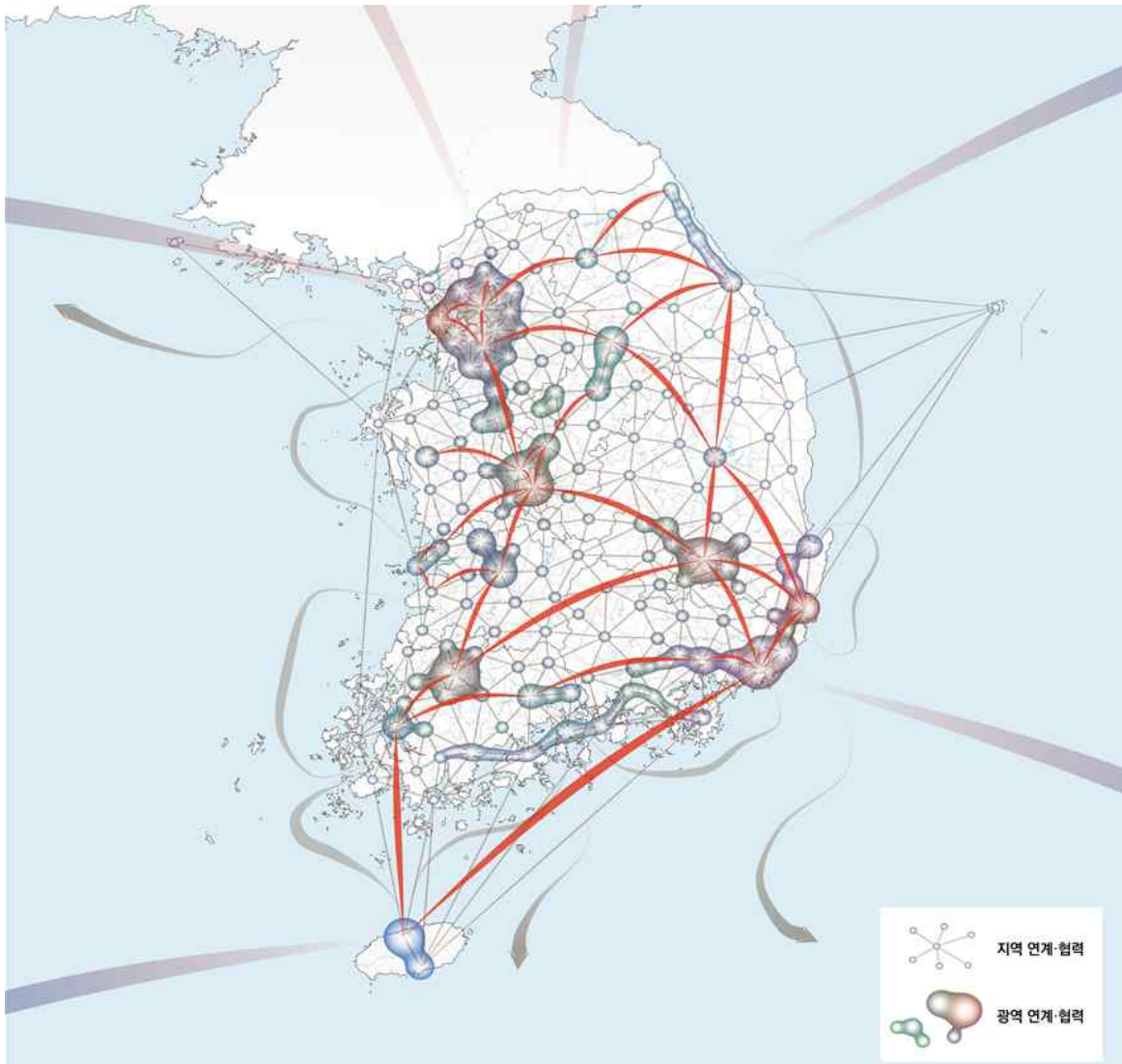
○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축

- 거점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공간을 조성하고, 거점 간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국토공간을 구축

○ 공간 연계의 유연함과 강인함

- 지역-지역, 지역-중앙, 중앙-중앙 간의 산업, 관광,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탄탄한 연대는 지역과 도시,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
- 공간 간의 교통, 정보통신, 행정 등 하드웨어 + 소프트웨어 연계는 인구감소 등 미래의 위기에 다양한 형태로 대응 가능한 유연성 확보

< 연대·협력의 유연한 스마트공간 구축 >



참고 2

기본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비교

구분	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(2011-2020)	제5차 국토종합계획 (2020-2040)
비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두를 위한 국토, 함께 누리는 삶터
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•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• 품격있는 매력국토 •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•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•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
공간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방형 국토발전축 5+2 광역경제권 중심 거점도시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축
발전 전략	<p><6대전략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토경쟁력 제고위한 지역 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• 자연친화적, 안전한 국토 조성 •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·주거환경 • 녹색교통·국토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•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•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	<p><6대 전략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·협력 촉진 •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•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• 품격있고 환경친화적인 공간 창출 •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 지능화 •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
지역 발전 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광역경제권 형성하여 지역별 특화 발전, 글로벌 경쟁력 강화 •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(대도시와 KTX 정차도시 중심으로 도시권 육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간 재배치를 통해 압축적 발전, 지역 간 다양한(하드웨어 + 소프트웨어) 연계·협력으로 경쟁력 강화 •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
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개발사업 남발 방지위한 효율적인 지역개발 시스템 구축 • 재원조달방식 다양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연동 • 국토-환경 계획 통합관리